

기독교 윤리학적 관점에서 본 라인홀드 니버의 신화론

유경동

감리교신학대학교 교수, 기독교윤리학

I. 들어가는 말

현재 세계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팬데믹(Pandemic)의 상황이다. 백신이 개발될 때까지 앞으로 인류의 운명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미래는 더욱 불투명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코로나19에 대한 의학적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할 과학과 인간의 생명과 복지를 책임져야 할 정치와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이다. 아울러 종교의 대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과의 공조 또한 매우 중요한 공적 책임으로 주목받고 있다.

필자는 그 어느 때보다도 과학과 이성적 판단이 중시되는 현 시대에 역설적으로 라인홀드 니버(Reinhold Niebuhr)가 중시하였던 ‘신화’(myth)의 해석에 관하여 관심을 두고자 한다. 니버는 인간 이성을 앞세운 과학적 합리주의와 근대주의적 사관을 통한 인간 문명의 발전에 매우 비판적인 관점을 취하였다. 산업혁명 속에서 인간 정신의 황폐를 보았으며, 근대주의를 통한 제국주의의 팽창과 핵전쟁의 참상을 경험한 니버는 역사의 의미와 인간의 궁극적인 생의 목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한 새로운 역사의 창조에 대하여 ‘불가능의 가능성’(impossible possibility) 윤리를 제시하였다.

<https://doi.org/10.18708/kjcs.2020.10.118.1.309>

니버의 신학에서 특히 '신화'(myth)에 대한 그의 관점은 신정통주의적 맥락에서 성서의 권위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이성적 관점에서 성서의 의미를 재구성하는 데에 노력한 모습을 보게 된다. 물론 니버는 '신화'를 별도의 주제로 분류하여 해석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주요 저작에서 매우 주의하여 신화의 문제를 해석하고 있는 점을 볼 수 있다.

필자는 이 논문을 통하여 니버의 신화론에 대하여 세 가지 관점을 중시하고자 한다. 첫째, 현 과학과 이성의 시기에 기독교적 '신화'에 대한 해석은 이성을 과도하게 중시함으로 자칫 인간의 정신과 생의 의미를 소홀히 할 수 있는 여지를 보완하여 줄 수 있다고 본다. 둘째, 니버의 신화 관은 현 기독교가 중시하여야 할 더 심오한 종교적 가치를 윤리적인 관점에서 조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셋째, 니버의 신화론은 종교의 가치를 개인주의적인 맥락에서 보지 않고 관계론적 관점에서 해석함으로써 공공신학을 위한 실마리를 제공하여 줄 수 있다고 본다.

니버의 신화에 대한 개념은 주로 그의 『기독교 윤리학 해석』(*The Interpretation of Christian Ethics*)에 비교적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그러나 그의 그의 주요 저작에서도 신화에 대한 해석이 나타나는데, 그 내용을 필자가 유형별로 정리하여 보면, '변증법적 개념으로서의 신화', '윤리적인 개념으로서의 신화' 그리고 '관계론적 개념으로서의 신화'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본다. 그동안 니버에 대한 연구가 주로 정치 신학적인 관점에서 '세력 균형'과 '현실주의 윤리'의 맥락에서 이루어져 왔는데, 신화론과 같은 연구를 통하여 기독교 신앙의 정수를 다시 확인하는 데에 이 논문이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이 논문은 니버의 신화론에 관심을 두기 때문에 니버의 사상에 비중 있게 나타나는 종교적 '상징'(symbol) 개념과의 비교는 지면의 한계상 이루어지지 못하였음을 밝힌다. 다만 니버가 그의 사상 초기에는 신화개념을 통하여 종교의 '궁극적 실재'(Ultimate Reality)와 연관하여 해석하다가 사상 후기에는 상징 개념을 통하여 더 폭넓게 종교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며, 이 점은 간략하게 이 논문의 후반부에 간략하게 정리하도록 하겠다.

II. 변증법적 개념으로서의 신화

니버의 신학에서 신화론은 기독교를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이지만, 그렇다고 니버가 별도로 이 주제를 다루고 있지는 않다. 니버의 사상에서 신화론이 등장하는 이유는 종교를 전 과학적인 것으로 파악하려고 하는 근대적 이성과 합리성에 대한 방어와 그리고 당시의 교조적인 정통주의와 자유주의적 기독교의 사관에 대한 비판에서 등장한다. 그러나 니버는 신화의 개념을 기독교적인 것으로 제한하여 사용하지는 않으며, 신정통주의의 관점에서 기독교 신앙을 변증하되, 회랍신화나 철학, 또는 형이상학의 개념을 포용하고, 기독교 신화의 특성을 탈역사적이 아닌 초역사적인 관점에서 ‘궁극적 실재’를 파악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된다.¹

1 필자가 니버의 신화를 ‘변증법적 개념’으로 소개하는 이유는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하나는 말 그대로 니버는 기독교의 진리를 변증하려는 입장에서 철저히 신화개념을 소개하며, 또 다른 하나는 기독교의 진리 관을 철학이나 형이상학, 과학, 이데올로기, 정통주의나 자유주의 등의 이론으로 해석하려는 그 어떤 시도에 대하여서도 니버는 그 안에 해답이 없다고 보며, 오직 제삼의 길인 ‘궁극적 실재’인 기독교론을 통하여 대안을 모색하려고 하였다는 점에서 ‘변증’의 개념을 사용함을 밝힌다. 참고로 본 논문에서 아래의 1차 자료 원문은 인용하는 사이트의 pdf 파일을 가지고 연구하였음을 밝힌다. *Leaves from the Notebook of a Tamed Cynic* (Willett, Clark and Colby, 1929);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 A Study of Ethics and Politics* (Charles Scribner's Sons 1936); *Beyond Tragedy* (Charles Scribner's Sons, 1937); *Christianity and Power Politics* (Charles Scribner's Sons, 1940); *The Nature and Destiny of Man I: A Christian Interpretation* (Nisbet & Co, Ltd, 1941); *The Nature and Destiny of Man II: A Christian Interpretation* (Nisbet & Co, Ltd, 1941); *The Children of Light and the Children of Darkness* (London: Nisbet & Co., LTD, 1943); *The Contribution of Religion to Cultural Unity* (The Hazen Pamphlet, USA, 1945); *Discerning the Signs of the Times: Sermons for Today and Tomorrow*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46); *Faith and History*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49). URL=https://archive.org/search.php?query=Reinhold%20Niebuhr (2020년 7월

첫째, 니버에게 변증법적 개념으로서의 신화의 특징은 이원론과 범신론을 극복하며, 기독교 신앙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정의하여 준다. 니버는 “종교적 신화는… 존재의 궁극적 근거와 궁극적 성취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위대한 종교적 신화들은 창조와 구속의 [문제를] 논한다. 그러나 신화가 역사 내에서 표현의 형태로 상징이나 사건들을 사용하지 않고는 초역사적인 [내용을] 말할 수 없다”²고 정의한다. 니버는 인간 존재의 궁극적 의미를 밝히는 데 있어서 종교적 신화는 매우 중요하다고 보았으며, 자칫 무의미한 시간의 흐름으로 여겨질 수 있는 역사 안에서 “실제 가능한 이상”을 찾음으로써 범신론을 극복하며 그리고 역사의 유한성 안에서 초월적인 가능성을 찾음으로 이원론도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³

니버는 “[신화는 과학이 분석하고 도표화하고 그리고 기록하는 수평적인 관계를 넘어서는 리얼리티의 수직적인 측면을 다룬다. 고전적인 신화는 존재로부터 신화의 개념을 추상화하지 않고 존재의 초월적인 근원과 목적을 언급한다”⁴고 강조한다. 이처럼 신화만이 “일관성과 의미를 주는 영역으로 세계를 조망할 수 있다”라고 강조하는 니버는 “의미의 핵심적인 근원”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이 종교적인 신화의 목적이라고 설명한다.⁵

니버는 신화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초상화와 인물사진의 차이점을 통하여 설명하는데, 초상화의 경우, 실제 그대로 보이는 광학적인 모습이 아니라 인물의 감정이나 분위기를 묘사하는 것을 통하여 그 특징을 강조한

29일 최종 접속). 참고로 본 논문에서 위 목록에 없는 니버의 서적은 별도로 인용을 표기함을 밝힌다.

2 Reinhold Niebuhr, *Interpretation of Christian Ethics* (Harper & Brothers, 1935), 6.

PDF by ANGEL (realnost-2005@yandex.ru), URL=[https://spiritual-minds.com/religion/philosophy/Niebuhr,%20Reinhold%20-%20Interpretation%20of%20Christian%20Ethics%20\(P%20hilosophy,%20Theology\)%20\(Christian%20Library\).pdf](https://spiritual-minds.com/religion/philosophy/Niebuhr,%20Reinhold%20-%20Interpretation%20of%20Christian%20Ethics%20(P%20hilosophy,%20Theology)%20(Christian%20Library).pdf)(2020년 7월 29일 최종 접속). 참고로 인용 페이지는 pdf file의 순서를 따랐음을 밝힌다.

3 앞의 책, 32.

4 앞의 책, 11.

5 앞의 책.

다고 한다면, 기계적인 사진은 과학의 경우처럼 실제 보이는 것을 그대로 옮기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신화도 눈에 보이는 객관적인 사실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신화적인 내용을 통하여 어떤 특별한 개념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⁶ 따라서 니버는 신화를 문자적으로 이해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합리적으로 설명하려는 시도 또한 한계가 있다고 강조한다. 이와 같은 기본적인 신화 개념을 통하여 니버가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에 관한 것이다. 니버는 기독교의 신앙이란 인간 이성으로 파악할 수 없는 심오한 것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신화에 대한 해석이 신앙과 연관이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다.⁷ 기독교의 신앙이 궁극적 의미와 연관이 되는 것처럼, 신화는 “시간과 연관하여 영원을 말하기 때문에 일시적 사건들의 진술로 설명될 수 없다”⁸고 니버는 강조한다.

둘째, 니버는 변증법적인 관점에서 신화를 설명할 때, 기독교적 신화의 틀 안에서 단어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다른 신화들과 적극적으로 비교 검토한다. 예를 들어 니버는 일반 희랍 문명의 신화를 설명할 때, ‘신화’(myth)라는 단어를 기독교적 신화의 단어와 구별 없이 사용하지만, 성경과 희랍신화의 차이점에 대하여 설명함으로써 신화라는 개념을 기독교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한 변증법적인 개념으로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된다. 프로메테우스(Promethean) 신화의 경우, 반신인 그가 인간에게 불을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주었는데,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하거나 인간의 사악한 행위들을 막으려는 데 있어서 제우스가 질투하여 화를 낸 이유가 무엇인지 희랍신화에서는 분명하지 않다고 니버는 지적하면서, 그나마 소포클레스(Sophocles)가 제우스를 변덕스러운 신으로 기술하지 않고 인간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려고 하는 것을 막으려는 일종의 “궁극적인 질서”로 소개하는 것은 성서에 따른 관점에 근접하는 것이라고 니버는 설명

6 앞의 책, 32.

7 Reinhold Niebuhr, *Beyond Tragedy* (Charles Scribner's Sons, 1937), 18.

8 Reinhold Niebuhr, *Christianity and Power Politics* (Charles Scribner's Sons, 1940), 221.

한다.⁹ 니버는 희랍의 프로메테우스 신화보다 성서의 타락 신화는 인간의 실존론적인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보는데, 성경은 ‘내재적인’(immanent) 것과 ‘초월적인’(transcendent) 것의 차이를 분명히 함으로써 기독교의 신화는 일반신화가 내적으로 지향하는 어떤 목적이 아니라 그 조건을 넘어 궁극적인 지평에서 실존의 상황에 대하여 응답하는 초월적인 요소가 있다고 니버는 강조한다.¹⁰ 이러한 니버의 해석은 신화적 세계관이 지향하는 내재적인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화 안에 초월적인 요소가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임을 구분함으로써 기독교의 신화적 세계관에 있는 궁극적 의미에 대하여 집중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기독교의 신화는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을 통하여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분명하게 제시하여 궁극적 의미가 강조된다고 니버는 설명한다.¹¹

셋째, 니버의 신화론이 변증법적인 특성을 가질 때, 중요한 다른 요소는 이성에 대하여 중시하는 관점을 취함으로써 과학과 형이상학과의 논쟁을 피하지 않는다. 니버는 신화에 대하여 설명할 때, 이성과의 조화를 강조하지만, 그렇다고 이성으로 신화는 파악되지 않는다고 보며, 신앙과 이성 상호 필요로 함으로써, 신화는 이성 안에서 해석되지만, 이성을 초월하기 때문에 이성은 역설적인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설명한다.¹² 이와 같은 니버의 의도는 이성 안에서 신화를 파악하지만, 인간 이성의 한계를 지적함으로써 인간의 유한성을 강조하는 입장에 서게 된다. 니버는 신앙의 고전적 세계관을 과학적 세계관으로 해석하려는 시도는 역사를 올바르게 해석할 수 없다고 보는데, 실재(reality)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에 있어서 과학이 그 역할

9 Reinhold Niebuhr, *Discerning the Signs of the Times: Sermons for Today and Tomorrow*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46), 64.

10 Reinhold Niebuhr, *The Self and the Dramas of History*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55), 80.

11 이에 대한 해석은 이 논문의 II, III, IV에서 설명이 될 것이다.

12 Reinhold Niebuhr, *Interpretation of Christian Ethics*(1935), 7. 니버는 헤겔에 대한 비판과 함께 이 주장을 이어가며 배경으로 버디에브 이론을 인용하고 있다. Berdyaev, *Freedom and the Spirit*, 70.

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¹³ 니버는 신학이 “다양하고 때로는 모순처럼 보이는 신화들로부터 생에 대한 합리적이고 조직적인 관점을 구축하려는 그런 노력”이라고 한다면, 이는 철학이 훨씬 신학보다 앞설 수 있다고 보면서, 그런 맥락에서 헤겔이 종교를 “원시적 철학”이라고 본 점은 당연하다고 니버는 포괄적으로 신화에 대하여 해석한다.¹⁴

니버는 형이상학이 합리적인 과학보다는 종교 신화에 더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면서 버다예브(Berdyayev)의 이론을 소개하는데, 그에 의하면 “신화는 한 실재(reality)로서 어떤 개념보다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크다.”¹⁵ 버다예브는 따라서 신화는 고안될 수 없으며, 원시적 사고에서나 나타나는 환영과 같은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신화는 “영적 생명의 원초적인 현상”으로서 신화는 자연적인 것 안에서 초자연적인 것을 드러낸다고 강조한다.¹⁶

그러나 초자연적인 신화의 특성은 니버에게 탈역사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초역사적이다. 히브리 전통의 예언 운동에 나타나는 ‘신화’는 어린이들의 경우, 자신들이 바라는 어떤 궁극적인 것을 표현하고자 할 때, 몰활론적(animistic)으로 설명하는 것처럼, 신화는 전과학적(pre-scientific)인 성격을 가진다고 니버는 지적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신화가 ‘초과학적’(supra-science)¹⁷이라고 부연함으로써 역사적 성취를 지향하는 신화의 특성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최후의 성취를 시간의 끝에 두며 일시성 위의 영역에 두지 아니하는 것은 예언 종교의 참된 천재성”이라고 니버는 강조하는 것이다.¹⁸

니버의 기독교 신화에 대한 변증은 일반신화와 형이상학, 철학 그리고

13 앞의 책, 6.

14 앞의 책, 7.

15 앞의 책.

16 이 해석은 니버가 버다예브의 *Freedom and the Spirit*의 70쪽에 있는 내용을 간략한 것이다.

앞의 책, 7. 버다예브에 대한 각주는 니버 책 pdf 파일 14쪽에 있다.

17 앞의 책, 11.

18 앞의 책, 22.

과학과의 차이점을 강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마르크스주의의 유토피아(utopia)와도 거리 두기를 시도한다. 니버는 마르크스주의도 자연주의의 특성을 가진 유토피아로서 일종의 종교적인 신화와 같은 특성, 즉 다다를 수 없는 궁극적인 것을 “시간과 역사 안에서” 성취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지만, 유한한 역사 안에서 이상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것은 문제였다고 비판한다.¹⁹ 이와 같은 자연주의의 문제는 초월적인 신화적 상징을 “시간과 역사 내 목표”로 삼을 때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유한하고 임시적인 역사적 이상(ideal)을 실현 가능한 목표로 삼을 때 그 의미의 본질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라고 니버는 설명한다.²⁰

넷째, 니버는 지금까지 살펴본 변증법적인 신화의 특성은 기독교 자체 내의 사조에 적용하여 논의를 지속한다. 니버는 자유주의 기독교도 종교의 내용을 과학적 합리성으로 포장하여 당시 사람들에게 설득하려고 노력하였지만, 기독교가 중시하는 보다 근본적인 신화의 내용을 소홀히 하였다는 비판적 관점에서 서 있다.²¹ 그리고 니버 시대의 정통주의의 문제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뜻”을 과거 “오래된 사회적 규약인 교회법의 도덕적 기준과 선부르게 동일시”함으로써 결국 초월적인 신화를 “서툰 과학”(bad science)으로 만들었다고 꼬집는다.²² 아울러 정통주의의 ‘성찬 중심주의’(sacramentalism)는 하나님이 심판자 되심을 강조하기보다는 불완전한 피조 세계를 강조하게 되어, 예언 종교의 특성인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성취되는 미래의 심판 개념이 약화 된다고 비판한다.²³ 니버는 기독교 정통주의가 마니키즘(Manicheism)과 영지주의(Gnosticism)와 같은 이원론을 극복하는 역할을 하였지만, 정통주의의 성찬 주의를 수용함으로써 ‘궁극적인 실재’의 문제를 유한한 현실 안에 갇히게 하는 한계를 보였다고 비판한다.²⁴ 니버는 정

19 앞의 책, 9.

20 앞의 책.

21 앞의 책, 3.

22 앞의 책, 5.

23 앞의 책, 12.

통주의가 가능성과 유한성의 역설인 신화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단지 선하고 도덕적인 인간의 전형으로 축소함으로써 인간이 자신의 유한성을 깨닫지 못하고 인간이 도덕적으로 성취할 가능성을 너무 강조하여 기독교의 본질을 왜곡하였다고 비판한다.²⁵

대표적인 예로 니버는 동정녀 탄생에 관한 내용을 “순수한 역사적 사실로 파악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역사를 초월하는 신화의 특성을 오히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는데, 니버의 의도는 ‘궁극적 실재’에 대한 파악을 인간의 이성적인 잣대로 저울질할 수 없으며, 인간의 유한성을 인간이 인정하지 못하면 인간의 구원조차 인간의 이성으로 파악하는 식이 되어 하나님의 선(Good)에 위탁하지 못하게 되며,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의 유한성을 통하여 파악하려고 하게 된다고 비판한다.²⁶ 따라서 니버의 신화 개념은 인간의 유한한 현실(reality)을 수용하고 초역사적인 궁극적 의미를 파악하려는 신학적 개념이라는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필자는 신화에 대한 니버의 기본적 개념들을 살펴보았는데, 그는 신화를 탈 역사적인 개념으로 보지 않고 초역사적인 개념으로 이해함으로써 역사의 중요성을 파악하는 이성의 역할을 축소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신정통주의의 선상에서 신학을 펼친 것을 보게 된다. 아울러 니버 당시의 자유주의나 정통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신화의 개념을 변증법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자유주의가 기독교의 신화적인 내용을 전-과학적인 것으로 해석하려고 한 점이나 루터나 칼빈주의의 정통주의가 기독교의 진리를 교조적인 맥락에서 해석하려고 한 점들을 지적하고, 이를 극복하려고 신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따라서 니버의 기독교적인 변증법, 즉 ‘궁극적 실재’의 의미를 파악하는 제삼의 대안으로 초역사적이되 탈이성적이 아닌 신화의 개념을 적절하게 신학적 이론으로 니버는 사용함

24 앞의 책, 14.

25 앞의 책, 7.

26 Reinhold Niebuhr, *Beyond Tragedy*(1937), 17.

으로써 기독교의 진리를 보호하려고 노력한 점을 높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다음 장에서 니버가 이해한 신화의 개념을 ‘윤리적’인 관점에서 살펴 보도록 하자.

III. 윤리적인 개념으로서의 신화

니버가 신화에 대한 개념을 사용할 때 중요한 점은 앞 장에서 언급하였듯이, ‘궁극적 실재’인 하나님에 대해 설명을 할 때 주의하여 사용하며, 특히 창세기를 통한 창조의 신화에 대한 해석에서 하나님을 역사의 주관자로 강조함으로써 인간은 역사 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예언자적 지평에 서게 되는 윤리적인 관점을 니버는 강조한다. 니버의 신화론에 나타나는 윤리적인 요소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그 능력 안에 있는 기독교적 역사관인데, 이를 차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니버의 윤리적인 신화관은 철저하게 유일신론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가리킨다. 니버는 ‘신비적’(mystical)인 것과 ‘신화적’(mythical)인 개념을 구분하는데, 신비적인 것은 외적 세계의 유한한 것을 내적 세계의 영적인 것으로 극복하려는 일련의 ‘자의식’에 근거한 이성적 노력이라고 보고 있다.²⁷ 따라서 니버에게 신화는 이처럼 신비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 이성을 통하여 파악할 수 있는 자연적인 세계관의 합리성을 넘어서는 그 이상의 ‘궁극적 실재’에 관한 것이기에 기독교 세계관을 그리는 신화의 세계에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지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의 자연법에 나타나는 것처럼 첫째 원인으로 ‘부동의 동자’(Unmoved Mover)는 아니라고 강조한다.²⁸

니버는 이사야 40장의 말씀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27 Reinhold Niebuhr, *Interpretation of Christian Ethics*(1935), 10.

28 앞의 책, 11.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 같이 퍼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사 40:22)를 인용하면서, 하나님은 인간이 파악할 수 없는 실재라고 설명한다.²⁹ 니버는 위의 말씀을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피조 세계를 초월하여 계시며, 인간으로서는 그의 존재를 파악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에 대한 해석은 신화의 개념을 빌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다.³⁰

니버의 신화론에 있어서 ‘궁극적 실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해석은 하나님의 창조행위에 대한 전적인 주권에 대하여 강조하는 방향으로 흐르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역사의 주권자로 강조된다. “창조 신화는… 초월자가 역사의 과정에 참여한 것이지 역사와 동일시될 수 없다고 보는 세계관을 위한 탄탄한 기초를 놓았다”³¹고 니버는 강조한다. 니버는 창조 신화야말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예언적 또는 종말론적인” 특성을 가지는데, 그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동시에 역사 안에서 존재의 의미를 드러내는 보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고 해석한다.³²

둘째, 니버의 윤리적인 신화 관은 철저하게 인간의 유한성을 지적한다. 그의 신화에 대한 해석은 창조주 하나님을 역사의 통치자로 전제하며, 역사 안에서 궁극적 의미를 인간에게 부여하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는 자녀로 그려진다. 니버는 히브리 전통에 나타나는 신화의 특징은 예언적이고 유일신론적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러한 신화의 특징은 어린이들의 세계에 나타나는 조악한 신화적 세계관을 깨끗이 일소하고, 합리적이 아닌 “윤리적인 종교적 열정”을 만들어낸다고 설명한다.³³ 니버는 특히 히브리종교에 나타나는 생명의 경외는 생명이 피에 있다는 믿음에 근

29 앞의 책, 12. 니버는 성구 인용에 있어서 이사야 45장의 경우, 몇 절을 구분하여 인용하며, 괄호 안의 절 표기는 필자가 보충한 것임을 밝힌다.

30 앞의 책, 12.

31 앞의 책, 10.

32 앞의 책.

33 앞의 책, 11.

거한다고 보며, 이러한 히브리 신화에 근거한 사상은 현대의 자연주의와 자유주의 그리고 급진주의에도 나타난다고 보면서도, 그런데도 히브리 신화는 “자연과 역사의 과정”이 “결코 자급자족하거나, 자명하거나, 아니면 자기 구속”에 대한 관점은 없다고 주장한다.³⁴ “하나님은 역사를 구속할 것이나(자연주의와는 대비되는 신화적인 강조라고 할 수 있다) 구속받을 역사 안에 있는 실제 세계를 [구속하는 것이다(이는 합리적인 신비주의 종교의 피안적 세계의 [개념과] 대비되는 신화적인 강조이다).”³⁵

셋째, 니버의 윤리적인 신화 관은 역사의 의미를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서 순종하는 인간의 모습을 구현한다. 니버는 구약성서에 나타나는 히브리적 신화는 이 세상에서 인간이 직면하는 생의 의미를 매우 심오하게 설명하여 준다고 강조하면서, ‘악’에 대한 해석의 경우에도 “그 책임을 신이나 자연에 돌리지 않으며”, ‘죄’에 대한 문제에도 그 원인을 신에게 돌리거나 자연의 속성으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한다.³⁶ 니버는 이와 같은 히브리적인 신화의 세계관은 세상을 “전적인 신성이나 선을 간직한 세계로 간주하는 낙관주의”나 또는 “역사적 존재를 무의미한 주기의 영역으로 격하시킨 비관주의”가 아니라고 강조한다.³⁷ 이와 같은 히브리 신화의 특징은 이 세상에서의 인간의 삶에 의미와 기쁨을 주며, “자연과 역사는 창조주께 영광을 드리는 것”에 그 중심 사상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니버는 이사야 45장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차례로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이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의 백성에 대하여 강조한다.³⁸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 신이 없느니라(사 45:5).

34 앞의 책, 13.

35 앞의 책. 괄호 “()” 안의 내용은 본문에 있는 니버의 관점이다.

36 앞의 책, 12.

37 앞의 책.

38 앞의 책. 니버는 성구 인용에 있어서 이사야 45장의 경우, 몇 절을 구분하여 인용하며, 괄호 안의 절 표기는 필자가 보충한 것임을 밝힌다.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사 45:7).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투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사 45:9).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며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니이다(사 45:15).³⁹

니버가 강조하는 신화는 하나님의 창조와 역사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궁극적으로 역사의 성취를 향하여 나아가는데, 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신화에 있어서 완성은 역사의 끝이지 역사의 파국이 아니라고 니버는 강조하면서, 창조의 시작이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역사 또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완성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구원은 역사의 끝에 있는 것이며, 역사 넘어 영원의 영역에 있는 것이 아니다.”⁴⁰ 니버는 예언 종교는 하나님의 나라를 개별화나 개인주의화의 관점에서 다루지 아니하며, 인간의 자유와 연관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한다.⁴¹ 따라서 니버가 해석하는 신화의 세계관은 결코 탈역사적이거나 정적주의로 흐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윤리적 행위가 역동적으로 펼쳐지는 장이다.

넷째, 니버의 윤리적인 신화 관은 역사의 성취는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완성된다고 강조한다. 창세기 타락의 신화는 인간 존재가 전적으로 유한하다는 의미를 드러내며, 그 대안은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회복된다. 니버는 예언 종교에서 신화는 역동적인 윤리적 요소를 잘 드러내며, “초월적 기준”에 맞추어 인간의 삶의 내용을 묘사한다고 강조한다.⁴² 니버는 예언 종교의 초월적인 윤리적 요소는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는 인간에게 이웃을 사랑할 만한 능력이 있어서 사랑한다는

39 앞의 책. 괄호 안의 절 표기는 필자가 보충한 것임을 밝힌다.

40 Reinhold Niebuhr, *Beyond Tragedy*(1937), 188.

41 앞의 책, 188-189.

42 Reinhold Niebuhr, *Interpretation of Christian Ethics*(1935), 32.

스토익 주의(Stoicism)나 인간의 존엄성을 위한 발로에서 사랑을 해석하는 기독교 자유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다”라는 관점에서 해석함으로써 “역사적 존재에 대한 연합이나 친밀성”의 차원이 아닌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하신 초월적 의무의 각도에서 사랑을 해석한다.⁴³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니버의 신화개념은 ‘궁극적 실재’에 대한 하나님과 창조 세계에 대한 실재에 대하여 강조하면서도 역사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윤리적인 요소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창조 신화를 통하여 죄에 대하여 운명론이나 또는 인간 이성을 통한 낙관론에 빠지지 아니한 니버는 특히 역사의 책임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신화를 하나님과 세계, 인간과 세계와의 관계에서 인간의 존재를 파악하는 ‘관계론적’ 관점을 나타내는데, 그 내용을 차례로 이어지는 장에서 살펴보자

IV. 관계론적 개념으로서의 신화

모든 기독교 신화는 이런저런 방식으로, 한시적인 세상의 의미심장함과 불안 전환, 하나님의 위엄과 세상에 대한 그의 관계를 다 표현한다.⁴⁴

지금까지 필자는 니버가 정의한 신화의 개념과 신화의 변증법적 요소 그리고 ‘궁극적 실재’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히브리종교가 역사적이며 예언적 관점을 취하게 되는 윤리적인 특성들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니버의 신화론의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신화에 대한 해석이 궁극적으로는 개인주의의 완성이나 정적주의로 흐르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론적이라는 데에 있으며, 창세기 타락의 기사를 통하여 그 내용이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니버는 강조한다.

43 앞의 책, 77.

44 Reinhold Niebuhr, *Beyond Tragedy*(1937), 7.

니버는 창세기에 등장하는 “타락의 신화”는 인간의 “거짓된 교만이 인간 의 죄의 기저에 있다”고 정의한다.⁴⁵ 타락의 신화는 인간이 교만하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자신이 당하는 고통 또한 그 결과로 말미암아 그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니버는 지적한다.⁴⁶ 타락의 신화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성취할 수 있는 그 이상의 높은 가능성을 가지고 인간이 자연과 조화할 수 있는 여지를 허락하셨지만, 인간은 그 기회를 상실하고 인간의 이성은 이를 실천하지 못하고 자신과 자연으로부터 소외되어 버리게 되었다고 니버는 지적하는데, 이는 인간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과 조화할 수 있는 주체적 인간임을 상기시키는 것이다.⁴⁷ 이와 같은 인간의 악에 대한 경향은 끊임없이 인간과 타자와의 관계를 과묵으로 몰아넣게 되는데, 니버의 관계론적 신화라는 관점에서 드러나는 중요한 소주제는 악의 기원, 뱀, 성(sex), 가족, 바벨탑과 연관된 신화의 개념으로 이를 차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니버는 신화를 통하여 악의 문제에 대하여 그 정의를 분명하게 한다. 니버는 타락의 신화를 통하여 인간의 악과 기만과 죄의 문제를 하나님의 신적 주권과 인간의 유한성의 틀 안에서 해결 방법을 모색한다.⁴⁸ 니버가 강조하는 인간 존재에 대한 창세기 타락의 신화는 역사적인 것이 아니라 존재론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개념이라고 보는 점, 특히 인간 존재가 하나님과의 관계론적 맥락에서 해석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는데, 이를 통하여 니버는 죄의 보편성과 죄에 대한 인간의 책임에 대한 것을 비중 있게 다룬다.⁴⁹ 창세기에 나타나는 타락의 기사는 “인간의 악 안에 영과 본성의 역설적인 관계”를 드러내어 준다고 보면서, 니버는 인간의 타락은 인간의 책임과 연관

45 Reinhold Niebuhr, *Discerning the Signs of the Times: Sermons for Today and Tomorrow*(1946), 61.

46 Reinhold Niebuhr, *Christianity and Power Politics*(1940), 181.

47 Reinhold Niebuhr, *Beyond Tragedy*(1937), 138.

48 Reinhold Niebuhr, *Interpretation of Christian Ethics*(1935), 32.

49 Reinhold Niebuhr, *The Self and the Dramas of History*(1955), 76.

되어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다고 설명하며, 이는 “하나님의 허락에 의하거나 유한한 존재의 불가피한 결과가 아니다”라고 주장한다.⁵⁰ 니버는 악의 존재를 인간의 역경으로 해석하며, 인간의 타락에 대한 신화도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불복종]”으로 해석함으로써 인간 존재의 유한성에 대하여 강조한다.⁵¹ 타락 신화의 핵심적인 내용은 죄가 인간의 본성과 영의 접점에 있으며, 인간은 “자유와 부족함, 유한성 그리고 인간의 생에 있어서 영원을 바라는” 역설적인 상황을 강조하는 것이다.⁵² 이런 관점에서 창세기의 신화에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화는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니버는 설명한다.⁵³ 니버는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신화적인 요소는 바로 유한한 인간이 신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으로 결국은 파국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하며, 이러한 경향은 인간의 역사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으로 이해한다.⁵⁴

둘째, 인간의 성(sex)에 관한 문제도 인간의 관계론적 관점에서 인간에 부여된 질서가 깨어진 것이라고 니버는 강조한다. 아담의 타락과 연관된 신화는 아담이라는 개체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반역뿐만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인간의 본성을 드러낸다고 니버는 강조하면서, 성서는 이러한 신화의 내용을 “도덕적이며 역사적인 악”의 문제에 대한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⁵⁵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말미암은 타락은 “인간의 변덕과 유한함”의 본성을 보여주는 것이며, “성(sex)은 특별한 상징이자 죄의 결과로 간주한다”라고 니버는 지적하면서, 이는 육욕의 타락과 인간의 세대가 유한하다는 것을 드러내며,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필요로

50 Reinhold Niebuhr, *Interpretation of Christian Ethics*(1935), 28.

51 앞의 책, 12.

52 앞의 책, 29.

53 앞의 책, 33.

54 앞의 책, 34.

55 Reinhold Niebuhr, *Faith and History*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49), 121.

하는 것은 인간의 유한성을 드러내는 타락 신화의 핵심이라고 지적한다.⁵⁶ 니버는 창세기의 타락 신화를 통하여 인간의 유한한 실존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 관계의 분열과 아울러 최초의 남녀, 인간 사이의 분열로 이어지며, 더 나아가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깨어지는 과정을 설명한다.

니버는 구약성경에서 하와가 아기를 해산할 때, 심한 고통이 있게 되리라는 내용에 대하여 이는 신화적인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인간의 삶은 인간의 넓은 자유와 자유의 오용에 대한 뒤따르는 가능성에 의하여 동물의 삶과는 구별된다”고 설명한다.⁵⁷ 하와의 해산과 같은 신화와 연관하여 중시해야 할 중요한 점은 인간은 단지 후손을 생산하는 관점에서 파악할 수 없고, 인간은 상상력과 의지를 갖춘 존재로서 “보다 큰 영적 그리고 예술적인 창조성 그리고 파괴적으로 사악한” 존재라는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고 니버는 강조한다.⁵⁸

셋째, 니버는 타락의 신화에서 사탄에 관한 해석도 두 가지 점에서 가능하다고 보았는데, 하나는 사탄은 그 자신도 피조물이면서도 하나님에게 대항하였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이와 연관하여 볼 때, 인간의 타락 이전에 사탄의 타락이 의미하는 것은 인간의 타락은 운명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이 그 유한성을 잊어버리고 자유를 잘못 사용하는 것이었다고 지적한다.⁵⁹ 인간의 타락에 관한 신화에 있어서 인간과 뱀은 그들 자신도 신과 같이 되려고 한다.⁶⁰ 창세기의 타락 기사와 연관된 신화에서 인간은 하나님을 배반함으로써 그 책임을 벗어날 수 없으며, 인간은 악의 상징인 뱀에게 유혹을 받

56 Reinhold Niebuhr, *The Nature and Destiny of Man I. A Christian Interpretation* (Nisbet & Co., Ltd, 1941), 183. 니버는 이러한 해석의 이면에 어거스틴, 오리겐, 플라톤주의의 사관이 결합된 기독교의 ‘희랍적’ 전통이라고 부연한다. 같은 책, 183.

57 Reinhold Niebuhr, *Discerning the Signs of the Times: Sermons for Today and Tomorrow* (1946), 41.

58 앞의 책.

59 앞의 책, 192.

60 Reinhold Niebuhr, *Discerning the Signs of the Times: Sermons for Today and Tomorrow* (1946), 166.

는데, 뱀도 하나님을 배반한 피조물로써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날 수 없고, 이렇게 피조물들이 철저히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한,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히브리적 신화의 내용은 결국 피조된 모든 자연의 유한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니버는 주장한다.⁶¹

넷째, 바벨탑의 신화를 통하여 니버가 강조하는 것은 신이 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에 관한 것이다. 니버는 바벨탑의 신화 또한 금지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며, 신약성서에도 일관적으로 인간의 타락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특히 바울 서신에서 “순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타락하는 인간의 형상으로 만든 것”이 바로 인간의 속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한다.⁶² 바벨탑의 신화를 통하여 니버가 강조하는 것은 인간의 “욕망과 성취 그리고 기만”에 관한 것인데, 니버는 인간의 문명이 성취한 자만심 이면에 하나님의 진리보다도 자신들의 사회적 가치들을 더 높이거나, 자신들이 성취한 것을 최종적인 완성이라고 자만하거나,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시간과 공간의 창조주”처럼 스스로 높이는 것은 기만이라고 강조하면서, 이것이 바벨탑의 신화가 주는 교훈이라고 강조한다.⁶³ 바벨탑 신화의 핵심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비교할 수 없는 간격을 설명하는 것이다.⁶⁴ 니버는 아울러 바벨탑의 신화에 나타나는 언어의 혼란은 마찬가지로 인간의 유한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강조한다.⁶⁵ 니버는 바벨탑의 신화를 통하여 인간은 “하찮으며, 유한하고, 환경에 제한되는” 그러한 존재임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강조한다.⁶⁶

니버는 위와 같은 인간의 타락 신화는 인간 역사의 파국적인 실수와 무관하지 않은 진리의 세계관을 잘 드러내어 준다고 설명한다. 니버는 타자에

61 Reinhold Niebuhr, *Interpretation of Christian Ethics*(1935), 28.

62 Reinhold Niebuhr, *Discerning the Signs of the Times: Sermons for Today and Tomorrow*(1946),

61-62. 니버는 로마서 1:23을 인용한다.

63 Reinhold Niebuhr, *Beyond Tragedy*(1937), 27-28.

64 앞의 책, 44.

65 Reinhold Niebuhr, *Faith and History*(1949), 76.

66 앞의 책, 84.

대한 책임의 영역에서 인간의 악은 그릇된 방향으로 흐르게 되는 두 가지 측면을 지적하는데, 하나는 다른 이들을 억압하는 제국주의적 방식과 다른 하나는 이웃과의 관계를 무시하고 개인주의적인 경향으로 흐르는 것이라고 지적한다.⁶⁷ 니버는 당시 미국과 소련의 양대 강국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화적 세계관과 집합 기억에 기대어 분쟁을 촉발한다고 설명하면서, 신화의 개념은 정치적인 요소와 얼마든지 연관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⁶⁸

지금까지 필자는 니버의 신화 개념에 있어서 관계론적인 의미를 정리하여 보았다. 뱀의 타락과 인간의 타락, 바벨탑의 사건 등은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드러내며, 또한 그 결과로서 인간의 역사가 파국으로 흐르게 됨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다. 니버가 이해한 신화론의 핵심은 ‘관계론적’인 관점에서 하나님과 대척점에 있는 사탄과 인간 그리고 인간의 욕망을 전제하는 것이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간의 악으로 깨어진 결과는 고스란히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인간이 감당하여야 할 죄의 무게로 남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니버의 신화론은 그의 후기 사상에서 ‘상징’론을 통하여 변화를 두게 되는데, 그 이유는 볼트만(Bultmann)의 비신화화론(Demythodology)의 영향이라고 필자는 이해한다. 그렇다고 니버가 그가 사상적 초기에 이해하였던 신화에 대한 해석을 약화한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볼트만이 간과하였던 신화의 특성을 다시 재해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내용을 다음 장에서 간략하게 살펴보고 결론을 맺고자 한다.

67 *The Irony of American History*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52), 25. 니버 당시의 젊은이들은 후자 쪽을 상징한다고 니버는 같은 책에서 설명한다. religion-online.org, URL=<http://media.sabda.org/alkitab-2/Religion-Online.org%20Books/Niebuhr,%20Reinhold%20-%20The%20Irony%20of%20American%20History.pdf> (2020년 7월 27일 최종 접속). 참고로 니버의 원전은 pdf 파일의 순서를 따랐음을 밝힌다.

68 앞의 책, 17.

V. 결론: 니버의 신화론과 기독교 윤리적 의의

니버가 그의 『기독교 윤리학 해석』(*The Interpretation of Christian Ethics*)을 중심으로 일관되게 해석하였던 신화에 대한 개념은 후기 저작에서 그의 미를 보다 심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니버는 특히 『자아와 역사의 드라마』(*The Self and the Dramas of History*)에서 신화와 상징을 큰 구분 없이 함께 사용하는데, 이는 볼트만의 비신화화론(De-mythology)의 영향으로 보인다. 볼트만이 전과학적인 신화적 요소를 제거하여 본래의 케리그마(Kerygma)를 회복하려고 하였던 시도는 자칫 니버의 신화론 자체도 전 과학적으로 비쳐질 수 있었다고 본다. 니버의 입장을 헤아려볼 때, 처음에는 신화의 의미를 광범위하게 합리적 이성이 다다르지 못하는 궁극적인 의미의 영역을 파악하는 개념으로 사용하다가 볼트만의 비신화화론 이론에 이르러 신화의 개념과 아울러 상징의 개념을 중시하게 된 것이라고 필자는 판단하는데, 아마 니버는 신화보다는 상징의 개념이 본래 그가 의도하였던 개념과 더 가깝다고 생각하였던 것 같다.⁶⁹ 니버에게 신화(myth)를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상징(symbol)과 같은 매개물이 필요하지만, 이는 전적으로 신화의 초월적 특성을 대변하는 것이지, 만일 이것이 세속적인 이상(ideal)으로 변질하면, 이 세상의 유한한 것들을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는 문제가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니버는 주의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니버는 볼트만의 관점에 비판적인 견해를 밝히는데, 볼트만이 시도하였던 전 과학적인 초기 원시적 신화의 요소를 성경에서 제거하려는 시도는 ‘원시적인 신화’와 ‘영구적인 신화’(permanent myth)의 차이점을 구별하지

69 볼트만의 저서 독일판은 『신약성서와 신화』(*Neues Testament und Mythologie*, 1941)로 그리고 영문판은 『케리그마와 신화』(*Kerygma and Myth*, 1948)로 나온 것을 참고할 때, 니버는 그의 저서 『자아와 역사의 드라마』(*The Self and the Dramas of History*, 1955)를 출판할 때는 볼트만의 저서를 충분히 검토하였을 것으로 필자는 판단한다. 참고로 볼트만의 서적에 대한 정보는 다음을 참고하였다. URL=https://ko.wikipedia.org/wiki/루돌프_볼트만 (2020년 7월 31일 최종 접속).

못하였다고 지적하면서, ‘원시적인 신화’는 과거나 현재의 자연의 법칙을 통하여 검증될 수 있는 사안을 인정하지 않지만, 영구적인 신화는 일종의 ‘상징’으로서 “정확한 분석을 요구받는 대상이 되지 않으면서도 그런데도 경험으로 입증될 수 있는 ‘실재(reality)’의 의미를 설명한다”라고 부연한다.⁷⁰ 이러한 변화된 니버의 관점은 ‘신화’(myth)라는 단어가 ‘전 과학적’으로 비쳐 자칫 기독교 진리관에 대하여 회의적인 개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한다.⁷¹ 아울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나사렛 예수에 설명은 상징과도 연관이 있다고 강조함으로써 니버는 ‘신화’와 ‘상징’을 거의 같은 의미로 확대하여 해석하면서 다른 한편, 신화의 요소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볼트만의 비신화화론 작업이 한계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⁷²

니버의 위와 같은 입장을 염두에 두면서, 신화론을 통하여 니버가 공헌한 점을 기독교 윤리학적 관점에서 몇 가지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니버는 기독교를 변증하기 위하여 신화의 개념을 과감하게 빌려 기독교 세계관을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실재와 역사 그리고 인간의 존재론에 대하여 설명하는 데에 주저하지 않았다. 특히 신화를 탈역사적으로 보지 않고 초역사적인 관점에서 해석하여 인간을 자연적이거나 또는 역사적인 존재로 제한하지 않고, ‘자연 안’에, 또는 ‘역사 안에 있는 주체적인 존재’로 적극적으로 해석하였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이는 앞서서도 기술하였듯이,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이 자연과 구분되지 않는 범신론이나 자연과 분리되는 이분법적인 논리를 극복하는 데에 신화의 개념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을 보게 된다. 특히 니버의 역사관은 최후의 완성을 인간이나 역사의 발전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재림을 그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그 특징이 나타난

70 Reinhold Niebuhr, *The Self and the Dramas of History* (1955), 97.

71 앞의 책.

72 앞의 책, 98.

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일반적으로 ‘신화’라는 의미는 탈역사적, 또는 일부 문화적, 또는 개인주의적인 주관적 용어로 제한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니버에게 신화는 관계적인 맥락에서 사용되며, 특히 윤리적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신화가 담지하는 세계관은 허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인간 역사의 사회적 질서 안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인간의 책임과 무관하지 않다. 앞서서도 살펴보았듯이, 창조 신화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악, 하나님의 질투, 뱀, 아담과 하와, 바벨탑의 내용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파괴되었을 때, 그 결과로 나타나는 인간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자연 세계의 파괴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전제로 하는 유일신론의 급진적 윤리관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즉,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역사 창조와 역사의 개입 그리고 그 역사 안에 있는 인간의 윤리적 결단이 있어야 하는 예언적인 지평에 신화론은 함께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니버의 신화론은 인간의 존재론과 역사관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회복을 위한 윤리적인 요소뿐만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을 ‘이성적’으로 분명하게 제시함으로써 종교는 역사적인 것이 아니라 역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도구임을 분명하게 한다. 인간은 역사적인 존재가 아니라 역사를 해석하는 존재이며, 인간은 자연적인 존재가 아니라 자연 안에서 주체적으로 자연의 힘을 조화롭게 사용하여야 하는 피조물이다. 여기에서 신화는 현재와 미래 사이의 긴장 가운데 궁극적으로 역사의 심판이 하나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을 늘 상기시키며, 자기 변혁을 요구한다. 그러나 그러한 변화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는 자의식에 의하여 궁극적인 깨달음에 이르게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자의식을 의식하는 의식일 뿐이며, 신비주의와 다름이 아니다. 니버가 강조한 신화는 내재적인 것이 아니라 초월적이며, 영구적인 ‘궁극적 실재’를 담고 있는 신앙의 인식론적 그릇이라고 할 수 있으며, 내면적 변화와 사회적 변혁을 통하여 하나님의 세계를 역동적인

장으로 해석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개념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주제어 Keywords

라인홀드 니버, 신화, 초-역사적 신화, 이성, 궁극적 실재, 기독교 윤리
Reinhold Niebuhr, myth, trans-historical myth, reason, ultimate reality, Christian ethics

접수일: 2020년 8월 1일, 심사완료일: 2020년 8월 24일, 게재확정일: 2020년 9월 2일

참고문헌

- Niebuhr, Reinhold. *The Self and the Dramas of History*.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55.
- _____. *The Irony of American History*.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52.
- _____. *Faith and History*.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49.
- _____. *Discerning the Signs of the Times: Sermons for Today and Tomorrow*.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46.
- _____. *The Contribution of Religion to Cultural Unity*. The Hazen Pamphlet, USA, 1945.
- _____. *The Children of Light and the Children of Darkness*. London: Nisbet & Co., LTD, 1944.
- _____. *The Nature and Destiny of Man I: A Christian Interpretation*. London: Nisbet & Co., Ltd, 1941.
- _____. *The Nature and Destiny of Man II: A Christian Interpretation*. London: Nisbet & Co., Ltd, 1941.
- _____. *Christianity and Power Politics*. Charles Scribner's Sons, 1940.
- _____. *Beyond Tragedy*. Charles Scribner's Sons, 1937.
- _____.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 A Study of Ethics and Politics*. Charles Scribner's Sons, 1936.
- _____. *Interpretation of Christian Ethics*. Harper & Brothers, 1935.
- _____. *Leaves from the Notebook of a Tamed Cynic*. Willet: Clark and Colby, 1929.

한글 초록

필자는 과학과 이성적 판단이 중시되는 현 시대에 역설적으로 라인홀드 니버(Reinhold Niebuhr)가 중시하였던 ‘신화’(myth)의 해석에 관하여 관심을 두고자 한다. 니버는 인간 이성을 앞세운 과학적 합리주의와 근대주의적 사관을 통한 인간 문명의 발전에 매우 비판적인 관점을 취하였다. 산업혁명 속에서 인간 정신의 황폐를 보았으며, 근대주의를 통한 제국주의의 팽창과 핵전쟁의 참상을 경험한 니버는 역사의 의미와 인간의 궁극적인 생의 목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한 새로운 역사의 창조에 대하여 ‘불가능의 가능성’(impossible possibility) 윤리를 제시하였다.

필자는 이 논문을 통하여 니버의 신화론에 대하여 세 가지 관점을 중시하고자 한다. 첫째, 현 과학과 이성의 시기에 기독교적 ‘신화’에 대한 해석은 이성을 과도하게 중시함으로써 자칫 인간의 정신과 생의 의미를 소홀히 할 수 있는 여지를 완화하여 줄 수 있다고 본다. 둘째, 니버의 신화관은 현 기독교가 중시하여야 할 더 심오한 종교적 가치를 윤리적인 관점에서 조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셋째, 니버의 신화론은 종교의 가치를 개인주의적인 맥락에서 보지 않고 관계론적 관점에서 해석함으로써 공공신학을 위한 실마리를 제공하여 줄 수 있다고 본다.

Reinhold Niebuhr's Thought on Myth from a Christian Ethics Perspective

Kyoung-dong Yoo, PhD

Professor, Department of Theology
Methodist Theological University

The author will focus on the topic of 'mythology' among the theology of Reinhold Niebuhr in the current age where the role of science and the rational decisions are emphasized more than ever. Niebuhr chose a critical stance towards the development of human civilization that was achieved through the concept of modernism and scientific rationalism led by human reason. He witnessed the desolation of the human mind during the industrial revolution. After experiencing the expansion of imperialism through modernism and the devastation of nuclear war, Niebuhr proposed the ethics of the 'impossible possibility' regarding the meaning of history, the ultimate goal of human life, and the creation of new history through the death on the cross and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The author will also focus on the mythology of Niebuhr for the following three reasons. First, the interpretation of Christian 'mythology' in the contemporary era of science and reason, may alleviate the problem of neglecting the meaning of life and human mind due to immoderate emphasis on reason. Second, Niebuhr's perspective on the mythology will support the reformation of profound religious values that contemporary Christianity should focus on. Third, the mythology of Niebuhr interprets

the value of religion not from an individualistic context but the relational perspective, and therefore, it may provide a supportive foundation for public theology.